

Sermon Notes:

서론: 가짜는 항상 있어왔다!

본론:

1. 선지자들 중에도 가짜가 있었다.
 - 가. 구약 시대: 다수의 가짜 선지자들 (렘 6:13-14)
 - 나. 신약 시대: 종교 지도자들
 - 다. 마지막 때: 더 많은 가짜들이 활동할 것
2. 가짜들의 속성
 - 가. 위험함
 - 나. 위장에 능숙함
 - 다. 탐욕스러움
나관론을 주장, 잘못을 그냥 덮음, 심판보다는 자비를
3. 진짜와 가짜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: 열매
 - 가. 열매는 속일 수가 없음
 - 나. 열매는 무엇을 의미?
 - 삶: 완벽함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 (성령의 열매)
 - 말: 일상적인 말, 가르치는 말 (칼빈의 주장)
 - 다. 열매를 맺는데는 시간이 걸림: 꺾어봐야 앎
쉽게 판단해서 안 되지만 가짜들이 있음을 알고 경계
라. 좋은 열매가 아니면 찍혀 불에 던지움: 경외, 거룩함

결론: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, 가정, 교회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순종의 자녀가 되십시오.

암송구절: 마태복음 7 장 20 절
'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'

메모:

1. 가짜를 구별하고 속지 않을 수 있는가?
2. 자신이 어떤 나무라고 생각하는가?
3. 삶에 좋은 열매가 맺혀가고 있는가? 만약 없다면 어떻게 맺으려고 하는가?